

고품질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통권 제27호 | 2011. 10

경영저널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COVER STORY / 박노욱 봉화군수

정책조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시작

핫이슈 Bonghwa / 봉화, 2014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포커스 리딩 / 올 하반기 청년층 취업시장 꿈꿨

지자체는지금 / 김복규 의성군수 장학사업 진두지휘

청호평론 / 설립 10주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 자리매김

재테크 / "환매 수수료 없이 펀드 판매사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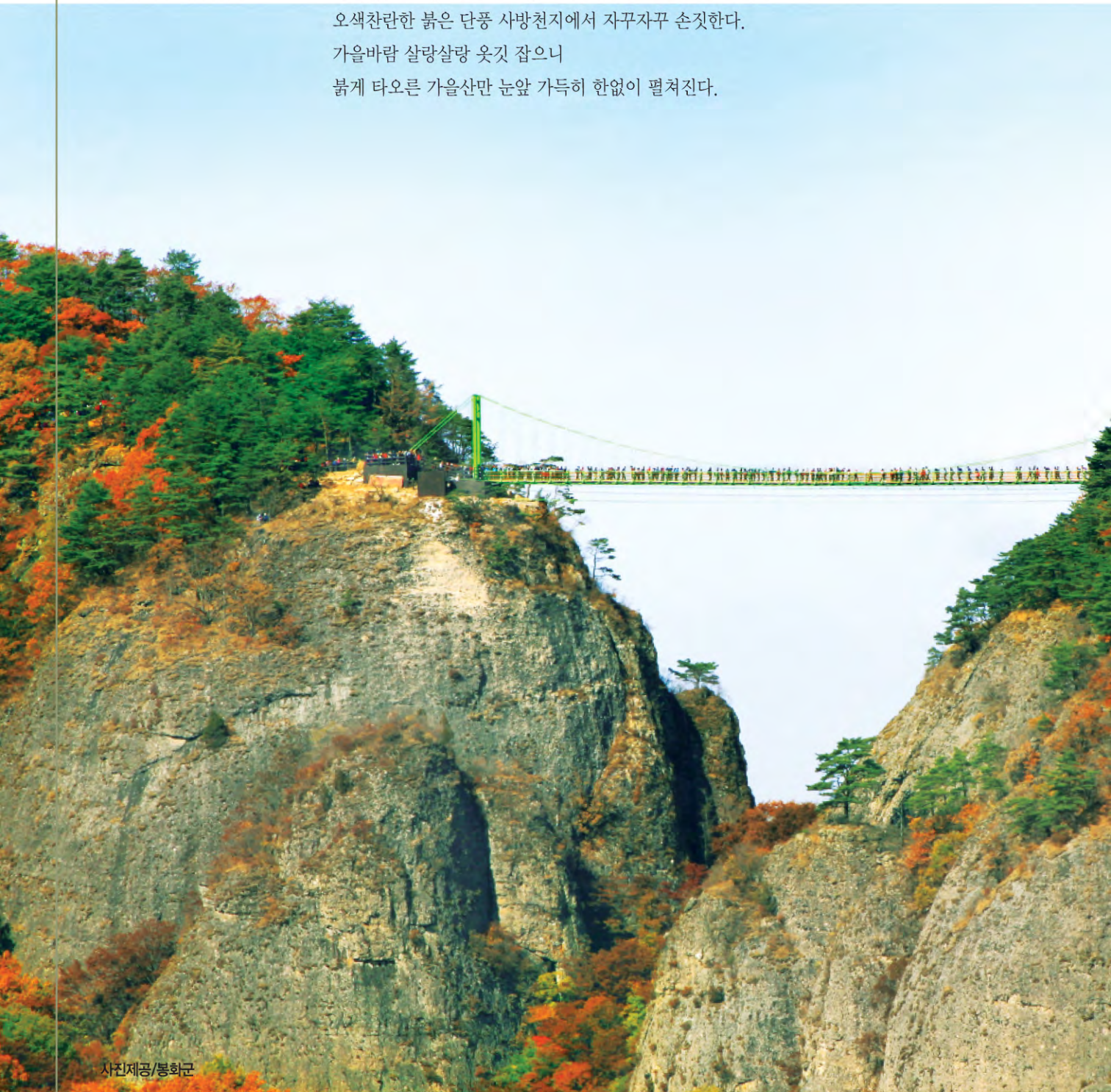
역사문화탐방 / 청송군 향일의병기념공원 개관



»» Photo Essay 청량산 하늘다리

글·이한나 기자

봉화의 명산(名山) 청량산 12봉.
자란봉, 선학봉 한 복판에 섰더니
오색찬란한 붉은 단풍 사방천지에서 자꾸자꾸 손짓한다.
가을바람 살랑살랑 옷깃 잡으니
붉게 타오른 가을산만 눈앞 가득히 한없이 펼쳐진다.



사진제공/봉화군

경영저널 www.managementjournal.co.kr 통권 제27호

발행인 이진구 | 편집인 조종성 | 등록번호 대구라07691 | 창간 2007년 11월 5일 | 편집위원 윤일형, 정성민, 장승욱 | 취재부장 서기대 | 취재기자 홍순대, 이종수, 이광희, 최우혁

편집 이한나 | 사진 김기환 |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TEL 053)766-1368 | FAX 053)766-1356

인쇄 삼영정밀인쇄사 | 가격 5,000원



C

Contents

- 02 _ Photo essay / 청량산 하늘다리
- 04 _ News wide / 경북도 노인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추진
- 06 _ Economic trend / 대구 교통비 전국 최고 수준
- 08 _ Cover story / 박노욱 봉화군수
- 12 _ 핫이슈 Bonghwa / 봉화, 2014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 14 _ 축제의 고장 Bonghwa / 여름엔 '은어축제', 가을엔 '송이축제'
- 15 _ Bonghwa 특산품 /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사과·한약우 맛보세요."
- 16 _ Focus reading / 올 하반기 청년층 취업시장 공공
- 20 _ 정책조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시작
- 22 _ 투게더 피플 / 참사랑 전하는 경북지방우정청 봉사단
- 24 _ 청호평론 / 설립 10주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 자리매김
- 26 _ 전문가 기고 / 중기(中企)기술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 27 _ Travel sketch / 역사전통의 고장 봉화
- 28 _ 재테크 / "환매 수수료 없이 펀드 판매사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
- 30 _ Life style / 알고 보면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 32 _ 지자체는 지금 / 김복규 의성군수, 장학사업 진두지휘
- 33 _ 역사문화탐방 / 청송군 향일의병기념공원 개관
- 34 _ 통계로 보는 대구·경북 농어업 / 대구·경북 쌀 수확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 연 48,000원
 신청 방법 :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epiglobal@kepi.or.kr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관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 계좌 : 대구은행 225-12-003611
 국민은행 698301-04-034744 (주)경영저널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epiglobal@kepi.or.kr)



경북도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 추진

경북도는 국비와 지방비 30억4천800만원을 투입해 도내 농어촌 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이번 의치보철사업은 크게 전부의치와 부분의치 시술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부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에 치아가 없으며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아래위턱 가운데 한쪽에 치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부분의치 시술은 아래위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어르신 가운데 잇몸상태가 양호한 어르신에게 지원되며, 아래위턱 한쪽에 어금니가 없지만 잇몸상태가 양호한 어르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술에 따라 지원되는 1인당 최고 금액은 전부의치는 150만원, 부분의치는 238만원이며, 이 사업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은 해당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면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계층간 의료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에 이어 내년에도 보다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

도록 국비 확보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시민 물가잡기 총력



포항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물가잡기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물가잡기 T/F팀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시민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청 직원 및 소비자 단체, 농수축협 담당자, 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 포항지역 각 경제 주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책회의는 올 하반기 물가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항시는 이날 대책회의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누적 재정적자 악화에 따라 선(先) 반영된 하수도 및 시내버스 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농수축산물 및 외식과 관련된 대표들과의 현장 간담회 등을 확대 추진, 물가잡기에 고삐를 당기기로 했다.

특히 쌀, 고등어 등 물가잡기 종점 관리 종목 62개 품목을 지정하고 경제산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하는 등 '담당자



책임제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물가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모범 업소를 발굴, 지원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물가 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성경 포항시 부시장은 “앞서 정부 역시 정책 기조를 ‘선(先) 물가안정, 후(後) 성장’으로 선화한 만큼 포항시가 추진하는 물가정책에 관련지부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올 하반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서민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대표 농특산물 홍콩시장 수출

안동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홍콩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홍콩 굴지의 무역업체 쉬풍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쉬풍그룹은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434을 수입해 홍콩시장에 판매하기로 안동시, 안동무역(주)와 각각 합의했다. 수출 금액은 원화로 11억원 규모다.

연매출 1천500억원 규모인 쉬풍그룹은 홍콩 본사와 마카오지사 등에 2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사과와 고구마, 메론 등 농산물 30t을 수입하면서 안동시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안동무역(주)은 지난해 기준으로 홍콩과 대만, 말레이시아, 호주 등 해외시장에서 안동지역 농·특산물 466t(9억3천500만원)을 내다 판 농특산물 수출 전문업체다.

안동무역(주)은 아울러 올 상반기동안 홍콩지역에 사과와 고구마 등 9억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등 안동지역 농가들의 판로지원 및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안동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았다”면서 “홍콩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신현국 문경시장 행정대상 수상

신현국 문경시장(사진)이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제8주년 기념행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신 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국군체육부대, 송실대연수원, 서울대병원연수원, STX리조트, (주)알루텍, (주)성신산업유치와 함께 봉릉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전국 최대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 ‘문경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 추진하고 오는 2015년 개최될 예정인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문경에 유치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신 시장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상은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과 시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있었기에 받을 수 있었다”면서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행복도시,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농업의 중심도시 문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 MRO사업자 선정방법 개선

조달청은 앞으로 소모성 행정용품(MRO) 공급자를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MRO사업자 선정방법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MRO공급자 선정과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로 제한하고, 연간 매출액은 종전 2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1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대폭 완화해 지역 중소 MRO 업체까지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데 있다.

또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에 따라 변별력이 작은 신용평가 등급 배점은 하향 조정하고, 제조업체에 대한 부당가격 인하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협력 및 가격관리 방안의 배점은 상향 조정했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다수의 중소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사회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순대 기자

대구 교통비 전국 최고 수준

경북 지난해 건설공사금액 큰 폭 증가



대구의 교통비가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반면 외식비는 가장 저렴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건설 경기 장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구의 건설공사금액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경북의 농가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교통비 전국 최고

대구의 전철료와 시내버스 요금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식비는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 서민생활 10개 품목 가격을 전국 16개 시·도별로 비교·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0개 품목은 정부의 물가관리 대상 품목 중 서민 체감 물가와 밀접한 전철료·시내버스료 등 지방공공요금 2가지와 삼겹살·돼지갈비·설렁탕·김치찌개·된장찌개·자장면 등 외식 비용 6가지, 배

추와 무 등 채소류 2가지다. 조사 결과, 대구지역 전철료는 1천100원으로,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광주(1천100원), 대전(1천100원)과 함께 가장 비쌌다. 이에 반해 서울(900원)과 부산(990원), 인천(900원)은 6대 도시 평균인 1천15원에 비해 저렴했다.

대구는 또한 시내버스료(1천100원)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1천150원)에 이어 두번째로 비쌌다. 경북, 울산, 대전, 광주의 시내버스료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1천100원을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평균(1천22원)보다 비쌌다.

시내버스료는 경기와 인천이 900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이어 제주(950원), 강원(983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달리 대구는 외식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했다.

1인분 120~300g 기준으로 대구의 삼겹살 가격은 7천533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삼겹살 가격은 제주(1만1천800원)와 인천(1만960원), 서울(1만386원) 순으로 비쌌다.

전국 16개 시·도의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9천122원으로 나타



났다. 돼지갈비도 이와 비슷해, 대구의 돼지갈비 1인분 가격은 6천733원에 그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저렴했다. 대구에 이어 경북이 6천760원으로 두 번째로 저렴했다. 대구는 이와 함께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가격도 각각 4천667원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저렴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의 전국 16개 시·도 평균 가격은 5천243원과 5천134원선이었다. 서민 대표 먹을거리인 자장면은 대구와 경북이 3천833원, 3천932원을 각각 기록해 전국 평균(3천954원)보다 저렴했다. 다만 대구는 상대적으로 설렁탕 가격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설렁탕 가격은 6천567원으로 전국 평균인 6천535원보다 조금 비쌌다. 경북지역 설렁탕 가격도 6천583원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 지난해 건설공사금액 소폭 증가

지난해 대구의 건설공사금액이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대구의 공사기성액은(건설사가 당해년도 시공한 총 공사액)은 4조9천850억원으로 전년의 4조9천740억원보다 110억원(0.2%) 늘어났다. 같은 기간 경북의 공사기성액은 11조8천360억원에서 13조2천310억원으로 11.8%(1조3천950억원)가량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전국의 공사기성액은 214조5천3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조4천910억원(1.1%) 줄었다. 전년 대비 건설공사기성액이 감소한 것은 99년(6.4%) 이후 처음이다. 건설공사금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해 공공 발주 물량의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내건설 공사기성액 가운데 본사소재 업체의 공사 비율(40.6%)은 전년(41.7%)보다 1.1% 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본사소재업체 공사 비율은 41.2%, 42.7%를 각각 기록,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 중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대구지역 본사소재업체의 공사비율은 31.3%, 경북은 44.8%를 각각 나타냈다.

또 전문업종별 건설업의 경우 대구와 경북지역 본사소재업체의 공사비율은 각각 47.7%와 41.1%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국의 건설업체는 7만4천382개로 전년보다 901개(1.2%) 늘어났다. 다만 전년대비 건설업체 수 증가 폭은 지난 2007년 5.0%에서 2008년 4.5%, 2009년 4.0%, 지난해 1.2% 등으로 3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종합건설업체는 1만467개를 기록해 전년보다 427개(3.9%) 줄었다.

이번 자료는 통계청이 지난 1월2일부터 최근까지 건설업체 수, 건설공사 실적 등 건설산업과 관련된 22개 항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으며 확정 자료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경북 농가수 전국 최고

경북의 농가수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 최종 집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의 농가수는 20만2천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는 경북에 이어 전남 17만가구, 충남 15만1천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농가 분포를 살펴보면 제주 제주시(2만809가구), 경북 경주시(1만7천438가구), 제주 서귀포시(1만7천84가구), 경북 상주시(1만5천903가구), 경북 안동시(1만5천299가구), 경북 김천시(1만5천106가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경북은 과수와 축산 규모 역시 전국의 32.5%와 18.8%를 차지, 16개 시·도 가운데 생산량과 출하량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경북은 전업 농가 비중 또한 61.9%를 기록해 전남(58.8%), 경남(56.6%) 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12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농·림·어가는 134만3천가구로, 5년전인 2005년(145만4천가구)보다 11만1천가구(7.6%) 감소했다. 이 기간 농·림·어가 인구는 393만1천명에서 5년새 43만2천명(11.0%) 감소한 349만9천명으로 줄었다.

최우혁 통계전문기자



박노욱 봉화군수

출생 1960년 봉화
 학력 봉화중·고 졸업
 동양대 경영학과 학사
 경북대 행정대학원 석사
 경력 경북도 의원
 봉화 JC 회장
 (사)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
 (사)대한산악연맹 경북도연맹 부회장
 수상 석탑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농림부장관 표창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봉화가 살기좋은 복지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들과의 소통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박노욱(51) 봉화 군수 취임과 함께 이런 변화의 바람은 봉화지역 전역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선 5기 닷을 올린 박 군수는 취임후 최근까지 △문화관광 역사의 고장 △귀농인들이 몰려드는 부농(富農)의 고장 △군민들이 행복한 희망찬 봉화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 9월20일 봉화군청에서 가진 본보와의 대담에서 박 군수는 “향상 군민 곁으로 다가서는 군정(郡政)을 펼치는 동시에 고향인 봉화 발전에 헌신하는 ‘참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 복지농촌 봉화 건설에 ” 헌신할 터

일문일답

Q 군정 운영철학은?

농민의 이들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고된 농사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사회활동에 즐겁게 참가하면서 지역발전의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임원, 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소신껏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해결점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부딪칠 수 있었던 것이 오늘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소통문화'를 되새기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 깊이 새겨져 있는 '소통'이란 두 글자는 '봉화군수'에 오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앞으로도 추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Q '산림휴양도시' 봉화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 프로젝트가 있다면?

A 봉화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태고의 생태자원을 그대로 간직한 녹색성장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봉화군은 이에 발맞춰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춘양면 서벽리 일대에 2014년에 개원 예정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은 국비 2천515억원을 투입하는 봉화군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이 수목원이 예정대로 들어서면 봉화를 뛰어넘어 경북 북부권의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힘을 보탬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은 이에 따라 수목원 조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주변지역에 종합지원지구 개발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식용식품 등 봉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림자원을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소는 물론 백두대간산림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사업도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고 있습니다.

군은 이와 함께 사업비 450억원 규모의 '누, 정, 휴 문화누리사업'도 현재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청량산과 낙동강일대에 3대 문화권사업의 하나로 총 사업비 689억원을 투입해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8월22일에는 중국 복건성 무이산시를 방문해 1999년 UNESCO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이산의 보존사례를 청취하는 값진 시간도 가졌는데, 이 역시 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이산시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입니다. 이를 토대를 볼 때 봉화는 앞으로 대자연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휴양, 레포츠관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명품(名品)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봉화 발전을 위한 차별화 군정은?

A 봉화는 도시민들이 선망하는 귀농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년 100가구 이상이 봉화지역으로 귀농을 선택하고 있는 등 '귀농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다른 농촌지역 지자체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친 덕분에 가능했다는 게 지역 사회 안팎의 중론입니다. 실제로 봉화군은 일찍부터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많은 도시민들을 위한 농정지 도시시스템 개발과 지원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등 귀농민 유치를 위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이 함께 귀농할 경우 이사비와 귀농정착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2년 이상 정착할 때에는 정착장려금과 함께 정부시책자금으로 귀농사업계획을 심사해 귀농창업자금과 주택자금 융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농민을 위한 배려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귀농인의 귀농준비 및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박 3일 과정의 봉화전문생활학교를 운영하고 1개월 과정의 귀농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영농교육과 1년과정의 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해 귀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지역에 귀농한 세대는 총 703가구, 1천71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귀농인구 증가세는 최근들어 한층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귀농인구가 이처럼 늘어나면서 지난해 봉화인구는 전년대비 270명 이상 증가하는 등 20년만에 인구가 다시 늘어나는 결실도 맺었습니다.

Q 봉화군의 강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A 봉화군은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청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상 경북의 최북단에 위치한 봉화는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근간인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32km가량 길게 뻗어있고, 군 면적의 8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옥산과 문수산, 옥석산과 같은 해발 1천m 이상의 고봉(高峯)을 10여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맑고 수려한 산수(山水)를 자랑합니다.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해온 덕분에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녹색성장 일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셈이지요. 봉화는 아울러 충(忠)과 예(禮)의 전통이 뿌리깊은 고장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신라 당대 대표 명필가인 김생을 비롯해 조선 개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정도전, 춘양전의 주인공 이도령의 실존인물인 성이성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을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께서도 봉화의 자랑인 청량산을 자주 찾아 심신을 다스리고 학문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

사료(史料)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병자호란편 삼학사 중 한 분인 홍익한 선생의 고향이 봉화이고 임진왜란 때에는 유종개 장군을 비롯한 지역 의병 600여 명이 소천 노릇재에서 왜적을 맞아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우국충절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봉화는 최근들어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의 고장으로도 세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국내 정자(亭子)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갖춰, 학계와 관광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봉화지역에 산재해 있는 정자 수만 무려 103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최남단의 열목어 서식지인 천연기념물 제74호인 백천계곡과 신라시대 대표 유적이자 국보 201호인 북지리마애여래좌상, 천년고찰 축서사 등도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봉화의 대표적 문화·역사유적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봉화의 자랑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5대 사고지 중 하나인 태백산사고지와 함께 수려한 산세로 당대를 빛낸 최치원, 공민왕, 노국공주 등의 발자취가 서려있는 '영남의 소금강' 청량산도립공원에도 관광객들의 발길로 연중 북적이고 있습니다.

Q 살기좋은 봉화 건설을 위한 비전이 있다면?

A 봉화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권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적 특성과 잠재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살기좋은

은 '복지농촌'을 조성하지는 취지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65억원이 투입된 춘양면 서벽권역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에 상운면 일대의 누리권역사업, 2008년에 명호면 일원의 청량산권역사업, 그리고 2009년에 재산면 일대의 덕산권역사업에 각각 선정되면서 활력 넘치는 '복지농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 대상지로 봉성면의 문수골권역과 춘양면의 억지춘양권역, 물야면의 고산수목원권역이 차례차례 지정되면서 총 7개 권역에 44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선진농촌 구현에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복지시설, 도농교류센터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한 소득증대사업과 함께 농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관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권역마다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등 주민 모두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 지원하고 있어 사업성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복지농촌 봉화 건설에 크나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Q 공약사항 실천에 대해선?

A 민선 5기 봉화군수에 취임해 1년을 되돌아보면 그간 구제역이라는 국가적인 시련도 있었지만 저에게서 지난 1년은 무엇보다 민선 5기의 전체적인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한

해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민선 4기에 시작된 각종 국책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8개분야, 57개사업의 밑그림을 견고히 다진 한 해로도 기억됩니다. 돌이켜보면 취임이후 군민들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던 행복했던 일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단결된 저력을 앞세워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15년만에 6강 진입이라는 쾌거를 이룩해 봉화인의 자긍심을 드높인 것 만해도 그렇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선정된 올 여름 봉화은어축제는 행사기간동안 무려 9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67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과 맞먹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 예산 3천억원 시대를 열어젖힌 민선 5기 2년차인 올해는 군민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그린 밑그림 위에 군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완성해 살기 좋은 봉화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을 작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기 중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 도시인 '파인토피아 봉화'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각오입니다. 군민들 곁에서 낮은 자세로 다가서면서 그 해법을 찾겠습니다. 군민 편에서 서서 '봉화 발전'에 헌신하는 '참일꾼'으로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문화관광 역사의 고장, 귀농인들이 몰려드는 부농(富農)의 고장, 군민들이 행복한 희망찬 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답=조종성 국장
정리=서기대 취재부장



봉화,

2014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생태휴양관광 메카 급부상
...경북 북부권 관광명소 자리매김

경북 봉화군이 백두대간 기반의 생태휴양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는 2014년 개원을 앞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을 통해서다. 총 사업비 2천515억원을 투입해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와 물아면 오전리 일대 5천179ha 규모로 들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조성 단계에서만 3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봉화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순항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봉화군이 천혜의 백두대간 자연환경을 활용해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유치하면서부터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국토의 핵심적 생태축이며,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는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다고 봉화군은 밝혔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국내 자생 생물종 보존과 연구를 수행하고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는 것이다. 고산식물원, 종자저장소(Seed Vault), 백두대간자생식물원, 진달래원, 세계문화자원식물원, 호랑이숲, 연구관리동,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오는 2014년 개원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사업비 역시 당초 2천300억원에서 215억원 늘어난 2천515억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최종 승인을 최근 얻은 바 있다.

봉화군은 8월말 기준으로 수목원 조성에 따른 편입부지 토지보상을 보상액 대비 93% 마쳤으며, 잔여 부지에 대한 보상도 올 연말까지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토지 보상업무에 착수해 10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최근들어선 환경영향 평가 등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수목원 조성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일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구역 5천179ha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설명회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끝냈다. 중점 조성지구 206ha와 생태탐방지역 4천973ha로 구성된 전체 수목원 구역의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별 무리없이 통과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성사업 시행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 조성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생물자원화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의 산림생태·휴양관광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직제개편을 통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을 신설, 지난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된 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은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 2009년 1월부터 태스크포스팀으로 운영되던 것을 정규 조직화한 것이다.





최적의 입지적 장점 부각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조성되는 춘양면 서벽리와 물야면 오전리 일대는 천혜의 자연생태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입지적 장점이 뛰어난 뜻이다. 경북도가 실시한 국립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입지 용



역 결과, 자연 생태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지난 2009년 7월 실시한 산림청의 입지 예정지 현장실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평을 얻었다. 봉화군에 따르면 봉화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만나는 백두대간의 중심부이자 금강소나무 군락지로, 생태 다양성이 풍부한 한반도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조명받고 있다. 특히 수목원이 들어설 춘양면 서벽리와 물야면 오전리 일대는 태백산과 소백산이 갈라지는 백두대간의 중심부, 즉 양백지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표고 또한 460m에서 1천346m에 달하는 덕분에 다층적 식생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다중점 시설 예정지 역시 경사도가 10도를 밑돌아 각종 시설조성은 물론 사업추진에 유리하고, 북향입지로 일반 수목원보다 5도 가량 낮아 고산 수목원 조성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수목원 조성지역은 춘양목 군락지로 1천18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등 다양한 식물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는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의 서식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백천계곡은 세계 최남단의 열목어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친환경 척도를 기능하는 자연 보호의 바로미터가 되는 반딧불이는 물론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 등이 서식하는 경북을 대표하는 생태보고로 인정받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 ‘특특’

봉화군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봉화군이 앞서 2천5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개원할 경우를 가정해 자체 조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수목원은 조성 단계에서만 3천6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3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목원이 예정대로 2014년 문을 열면 경북 북부권 관광 명소로도 자리매김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함께 나왔다.

개원 첫해인 2004년 방문객 100만명에서 17년 후인 2021년에는 171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조사됐다.

박노옥 봉화군수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면서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해 현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등 수목원이 개원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여름엔 '은어축제', 가을엔 '송이축제'

봉화에선 크게 여름과 가을 두 번의 큰 축제가 열린다.
민물고기 은어를 테마로 한 '은어축제'와 송이버섯 본고장인
봉화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송이축제'가 바로 그 것이다.



이색 여름 축제 '은어축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망축제'에 선정된 봉화은어축제는 그 역사가 10년을 훌쩍 넘긴 장수(長壽) 축제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봉화은어축제는 전국 각 지자체에서 선보이고 있는 여름축제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색 축제로 주목받고 있다. 은어를 주제로 한 여름 축제를 개발해 봉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봉화은어축제는 지난 1999년 제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13돌을 맞았다. '은어축제'를 찾는 방문객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봉화를 찾았다. 봉화군에 따르면 지난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9일간 봉화군 체육공원과 내성천 일대에서 열린 제13회 봉화은어축제를 다녀간 관광객만 45만7천3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기의 비결은 '청정지역 봉화를 가로지르는 성내천 일대에서 온 가족이 함께 민물고기인 은어를 잡으며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도'라고 알려진 봉화군의 차별화 마케팅에 있다. 은어 맨손잡기, 은어퀵스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 자녀와 함께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 등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고 봉화군 측은 전했다.

가을엔 '송이축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오면 봉화에서는 이번엔 송이를 테마로 한 가을축제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가을철 별미 송이버섯을 맛볼 수 있는 '봉화송이축제'가 바로 그것. 봉화는 송이의 본고장이다. 생산량만 무려 연간 80여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이다. 봉화송이는 태백산 지락의 마사토 토양에서 자라 수분함량이 적고 향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봉화송이축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자체가 마련한 축제 중 가장 성공한 축제로 인정을 받고 있다. '봉화송이축제'는 지난 1997년 1회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로 15회째를 맞는다. 올해 송이축제는 9월30일부터 10월3일까지 사흘간 봉화체육공원과 송이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서는 인기가수 초청 개막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송이채취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송이요리를 주제로 한 전시회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봉화군은 연계행사로 축제 첫날인 9월30일 봉화군 민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축제기간 내내 봉화송이 판매장을 개설, 운영하는 등 봉화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사과·한약우 맛보세요.”

‘웰빙 청정고장’ 봉화를 대표하는 농·축산물과 특산품은 크게 한약우와 사과, 유기(鎗器) 등으로 압축된다.

물야·춘양·봉성면 등이 주산지인 봉화사과는 연간 생산량만 1만7천68t에 달한다. 현재 1천900여 농가에서 1천407ha 규모로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봉화는 경북 청송, 안동 등과 함께 전국 대표 사과주산지로 주목받고 있다. 봉화사과의 특징은 단단한 육질과 함께 선명한 색깔, 높은 당도에 있다. 특히 씨앗주위엔 노란 색상의 이른바 ‘꿀층’이 형성돼 있어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봉화사과 품질이 우수한 데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덕분이기도 하다. 태백산맥의 남단에 위치한 봉화는 산간 고랭지 지역으로, 맑은 공기와 함께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 사과 재배를 위한 최적지로 꼽힌다. 병충해 발생이 적어 농약살포를 줄일 수 있어 웰빙 사과의 대명사로 비싼 가격에 출하되고 있다.

사과



한약우



약초를 첨가한 전용 사료로 키운 봉화한약우는 국내 대표 고품질 한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한우에 제공되는 약초는 당귀 등 총 5종이며, 약초를 가공할 때 생기는 부스러기와 잔뿌리를 모아 전용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한약재로 키운 덕분에 인체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봉화한약우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일반 한우보다 25% 이상 높은 7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봉화한약우는 이와 함께 육질이 부드럽고 육집이 풍부한 명품(名品) 한우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봉화군 측은 “100% 거세 비육에 나서고 있는 등 자체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동시에 28개월령 이상 장기 비육한우를 출하하면서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는 500여년을 이어온 경북지역 대표 유기발상지로도 조명받고 있다. 유기 장인(匠人)이 유난히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전통 유기마을인 봉화읍 삼계2리의 봉화유기장 기능보유자인 고해룡 선생은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가’에 지정된 유기 장인으로 이름이 높다.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22호-나’에 이름을 올린 김선의 선생 또한 내성유기를 기반으로 전통 방짜유기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봉화군 측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내성유기 제작과정을 보기 위해 봉화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봉화방짜유기는 78%의 구리와 22%의 주석을 합금해 만들고 있다. 이 방짜유기는 구입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은한 광택을 내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봉화방짜유기는 기업승계로 전통방식 그대로 전승되고 있으며, 100% 수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제기류 한 세트 가격이 무려 100만원을 호가하지만 품질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고 주문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다.

서기대 취재부장

유기



올 하반기 청년층 취업시장 ‘꽝꽝’

주요 대기업 채용확대 움직임 불구
청년층 실업자 증가세 꺾이지 않을 듯



취업의 문

청년층 구직자

올 하반기들어 청년층 취업시장이 또 다시 얼어붙고 있다. ‘경제대국’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경기가 또 다시 하강 국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글로벌 경기 회복을 낙관하지 못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 입장에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언제라도 인력 채용 문턱을 높일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채용 규모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내내 청년층 실업자와 구직 단념자층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층 구직난 심화

청년층(15~29세) 취업시장이 얼마만큼 얼어붙어있는 지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의 취업자수는 2천463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33만5천명(1.4%)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취업자 수(2천343만3천명)를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거꾸로 가고 있다. 7월 청년층 실업률은 7.6%까지 치솟으며, 2007년(7.2%)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이 지표상으로는 호전되고 있지만 마땅한 직업 없이 실업자로 지내는 청년층 실업자층은 되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늘어났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대구·경북지역 역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층 실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본보가 통계청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 2분기(3~6월) 대구지역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경제활동인구 평균 실업률(3.8%)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 7월과 8, 9월에도 이와 비슷한 실업률 추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북 또한 사정이 엇비슷해, 올 2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7.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청년층 실업률(6.8%)보다 0.7% 포인트 높은 것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이처럼 넘쳐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졸업생 등 양질의 노동력은 965만 명인데 반해 기업규모나 평균 임금,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산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581만개에 그치는 등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력괴잉과 일자리 부족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대를 칭하는 이른바 ‘갱겨루 족’도 최근들어서선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젊은 층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나머지, 부모들에게 의존하는 미취업 인구가 늘어난 탓이다.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취업난에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과학기술 일자리 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공계열의 일자리는 기업들의 투자부진 등의 이유로 최근들어선 고용률 증가세가 주춤한 형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공계 졸업생 중 전공을 살린 취업자는 18.2%에 그쳤으며, 졸업 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한 졸업생도 15.5%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전공지식을 활용한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률은 불과 30%선에 그치고 있다”면서 “과학기술 일자리 부족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고학력 취업난 마땅한 해결책 없다

고학력층 취업난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의 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윤상섭(가명·29)씨의 사례를 통해 청년층 구직자들이 취업난에 얼마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지를 짚어봤다.

윤 씨의 명분상 신분은 이른바 '취업재수생'이다. 그는 매일 대학 도서관에서 줄잡아 10시간 이상을 취업 준비에 나서고 있고, 늦은 밤이면 인터넷 취업사이트 검색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다. 명절 땀 친척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 고향 방문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본격적으로 취업문을 두드린 것은 대학교 졸업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다.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등록한 인터넷 취업사이트만 무려 5곳에 달한다. 구직활동 초기 석 달여간 그는

기승을 부린 지난 9월15일 경북대 중앙 도서관에서 만난 윤 씨는 "취업 뒷바라지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만 앞을 가린다"면서 "언제쯤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서글픈 마음이 든다"고 푸념했다. 윤 씨의 사례처럼 고학력 취업난은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상당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공장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국내 556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지난해 8월 졸업자 포함)의 평균 취업률은 고작 58.6% 수준에 그쳤다.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일반대학원 등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의 10 중 4명은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백수 신세'로 지내고 있다는 얘기도.

대학 별로는 전문대 취업률이 60.7%를, 4년제 대학 취업률은 이보다 낮은 54.5%선에 그쳤다. 더욱이 4년제 대학과 산업대 203곳



인터넷 원서접수만을 고집했었다. 그러나 '십 중 팔구'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정성이 부족해서였다고 판단한 그는 이후 우편 접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정성껏 꾸미고, 학용품 전문점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서류보관함에 넣어 가장 빠른 등기로 보내는데만 2천500원 가량이 들었다. 지금까지 50여통을 우편으로 원서를 접수, 소요 비용만 12만원 이상을 썼다. 서류 전형에 합격해도 면접을 보기위한 경비 부담 또한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서울에 한 번 면접을 보러 갈 때 드는 비용만 최소 10만원 이상이 필요하단다. KTX를 이용해 서울까지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만 왕복해서 7만6천800원이 소요된다고 했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하행길에는 2만9천100원짜리 새마을호를 이용할 때도 더러 있었다. 그는 최근까지 이렇게 총 여덟 차례 서울에 다녀왔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늘 안타깝게도 '불합격'의 연속이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각종 학원비는 물론, 교통비, 식비 등으로 최소 비용만 한달 평균 60만원 이상은 필요한 때문이다. 늦더위가

중 취업률이 50%에 미달하는 대학도 60곳에 달했다.

대구·경북권 대학권도 별반 차이는 없다.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평균 수준은 웃돌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일정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취업의 질(質)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졸업자 3천명 이상의 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경북대가 취업률 5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대 56.4%, 계명대 54.5%, 영남대 51.2% 순이었다.

또 졸업자 1천명에서 2천명사이의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금오공과대(67.9%), 대구한의대(58.5%), 안동대(5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전문대학 중에선 구미1대학(83.4%)·영진전문대학(78.2%), 영남이공대학(73.0%), 등이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취업난 해결책 없다

청년층 취업률이 이 처럼 낮게 나오자 정부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등 공생 발전을 위해 재계가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재계도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30대 그룹의 올해 채용계획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의 11만명보다 12.7% 늘어난 12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최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공기업 제외) 가운데 조사에 응한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2011년 하반기 4년대졸 정규직 신입직 채용 현황' 조사에서도 전체 기업 중 87.7%(263개사) 가량이 올 하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하반기 대졸 신규 공채를 진행하는 기업은 63.3%(190개사)였다. 24.3%(73개사)는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직까지 채용진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도 12.3%(37개사)로 이들 기업들이 올 하반기 채용을 확정할 경우 전체 채용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취업시장 안팎에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 같은 채용 규모 확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청년층 취업난 해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판적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유럽국가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는 게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올 하반기 세계 경제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치닫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 채용규모를 대폭 축소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유동성 위기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지구책 중 하나가 바로 인력 채용을 축소해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후 기업들은 채용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내 대기업 신규 채용은 전년 대비 14.5% 줄었다. 더욱이 2008년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층 거세게 몰아친 2009년에는 아예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부지기수였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주춤하거나 또 다시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지난 2008년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고용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구·경북 대표 취업포털사이트인 갬콤의 이소영 취업조사담당은 "대구지역 스타기업과 매출 1천억원 이상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 이들 중견기업들 중 올 하반기에 공채 방식으로 인력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기업은 '기물에 콩나듯' 매우 드문 형편"이라면서 "세계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로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나 인력 채용을 미루거나 관망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대 취재부장

학생역량개발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시작



최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업체)를 평가하여 수집운반대행의 능률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침 1page)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위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 등과 더불어 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제4조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평가의 필요성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발표하기 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및 선진화방안 연구」(2007.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11) 등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을 제안하고 있을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문제가 이슈화 되어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A시의 경우 관내 업체 11곳 중 무려 4곳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적환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A시 의회의 호된 질책으로 이어졌다. (S저널 인용) 또 다른 B군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에 따른 특혜의혹, 예산과다 지급, 분리수거 미비로 인한 쓰레기발생량 및 대행비 증가로 인한 문제로 직영운영과 대행운영을 병행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M일보 인용)

이러한 문제점은 예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2009년에는 민주노동당 출신의 국회의원 홍희덕의원이 대표발의(전체 12명)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상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다”는 문구를 “처리를 대행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었다.

즉, 수집운반은 직영하지는 것이다. 흥희덕위원의 제안이유는 효율성을 내세우며 청소용역업체에게 대행을 주는 곳도 있으나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은 자치단체장이 직접하는 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사용되며 전국각지에서 각종 유형의 부정부패를 양산하고 있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상정이유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2010년 4월 26일 289회 환경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당시 환경부차관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고, 그 결과로 현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제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탄생되었다.

이렇듯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 부각되어 2008년 현재 215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소(73%)가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P76-77)

따라서 1995년 종량제 쓰레기봉투 사용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래로 대행업체 평가라는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행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평가내용은 바른수거 정착, 수거과정의 시민편의 배려,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우수한 인력과 장비의 활용으로 다각화 하고 있으며, 주민만족도 평가 년 1회, 평가단 현장평가 년 1회, 실적 서류 평가 년 1회로 평가 회수에 대해 정해 놓고 있으며, 주민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을 배점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 포상금 지급, 사업구역 확대, 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시 관리감독 강화, 입찰제한, 계약해지 등으로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세부 평가기준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는 업체별 지역주민 200명, 주민만족도 설문지 예시, 평가시기, 평가지역, 시민평가단 현장평가표, 조사 표본수 평가항목 및 배점 계산방법까지 자세하게 지침상에 명시되어 있다.

평가의 여러가지 변수들

환경부에서 발표한 업체 평가 활성화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계약시 지자체별로 원가산정 방법, 기준 등이 달라 수집운반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대행비용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고 보도하고 있다.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몇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회시대라는 현재의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좁지만 넓은 나라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특히 수집운반의 경우에는 차량통행 도로여건, 배출원의 규모(공동주택, 단독주택, 거점수거, 문전수거),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경제적인 인력과 장비의 적절한 배치, 주민들의 분리수거의지, 주민등록증 인구, 주간인구, 유동인구, 사업체수, 종사자수, 주거형태, 주거지 면적, 수거지 형태(종형, 원형, 장방형) 등 아주 다양한 인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또한 이와 더불어 지역의 노동여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여건을 비교해 보자. 노동여건의 척도인 1인당 지역내 총생산(2009년 통계청자료)자료만 비교하더라도 대구는 1,346만원이고 울산은 4,622만원으로 울산이 3.4배나 높다.

대행업체 평가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통계는 실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의 고용에도 직결된다. 가령 똑같은 연봉 2천만원이라도 울산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대구에서는 그 반대인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고용환경은 사업주 입장에서 유리한 편이지만 울산에서는 그 반대일 수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대행업체마다 임금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한다면 전국의 청소행정은 열악한 지역의 상황은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인자로 인해 청소행정의 서비스가 좋고 나쁨이 나타나게 되는데 단지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그 복잡한 상호관계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호응만 충분하다면 말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같은 환경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된다. 예를 들면 업체 대행비 지급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수도 생긴다. 수거톤당으로 지급하면 생활폐기물 물량이 늘어나고, 이것은 재활용률을 떨어뜨리게 한다. 반대로 세대수로 지급하면 재활용률은 높지만 청소환경서비스가 떨어지고 쓰레기량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세대수의 증가로 총 비용이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쉽지 않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문제는 전문가집단의 품질높은 컨설팅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대행업체 평가는 반드시 그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집단에게 최상의 성과를 도출해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업체와 해당 부서가 충분히 소통을 가지고 과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청소행정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윤일형 편집위원





참사랑 전하는 경북지방우정청 봉사단

경북지방우정청 봉사단은 어려운 형편에 처한 지역의 불우 이웃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빛과 소금' 사명은 지난 2003년 1월, 2006년 3월 각각 발족한 경북청 우정사회봉사단과 집배원 365 봉사단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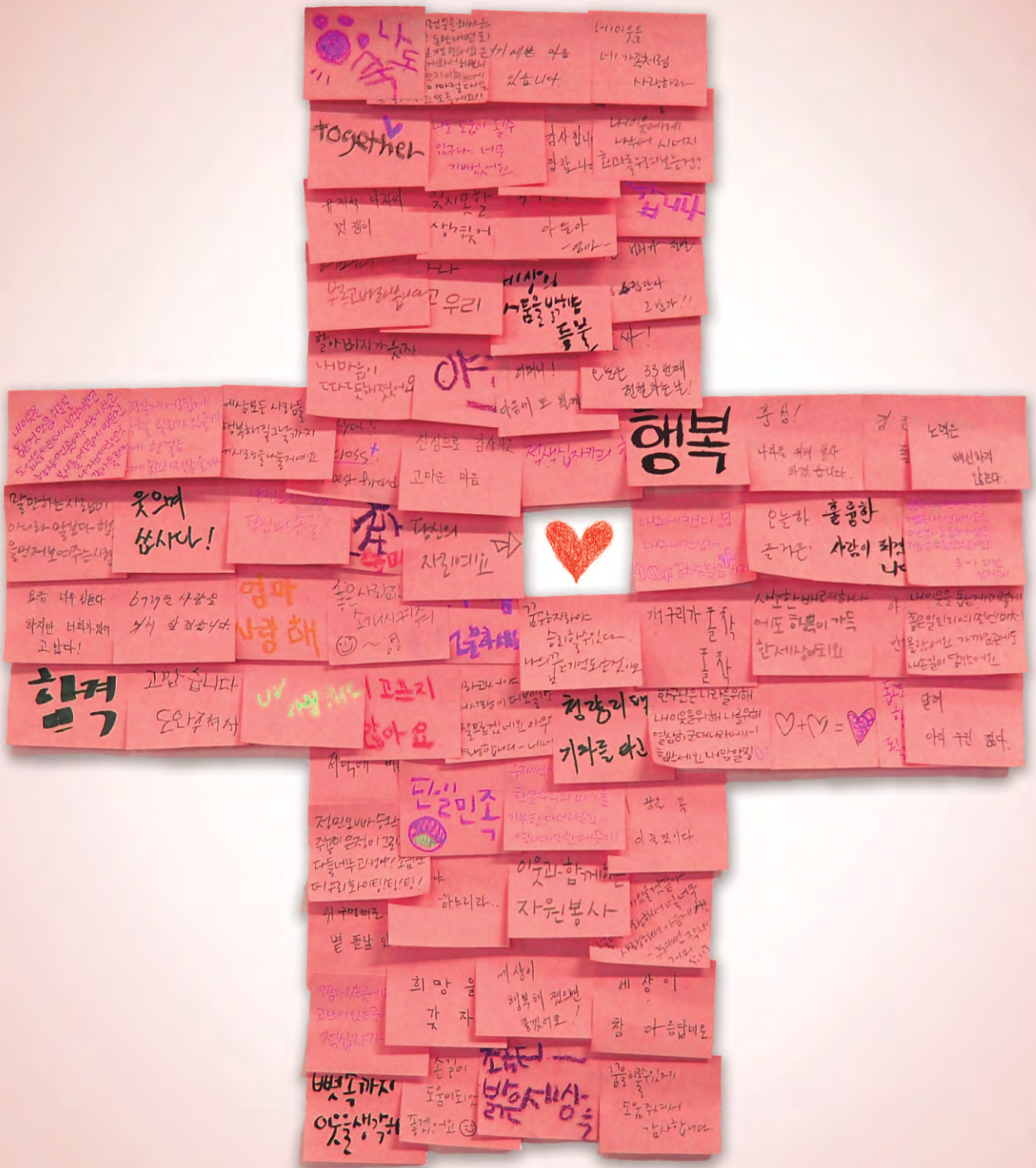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좋은 세상 만들기’를 모토로 지난 2003년 발족한 경북청 우정사회봉사단은 9월 현재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4천여 전 직원이 봉사단원이 돼 '사랑의 전령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에 매달 25만원을 지원하는 '다사랑운동'을 펼치며 훈훈한 정(情)을 나누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수혜를 받는 학생만 매달 18명에 달한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 어르신 가정에 매달 3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한 번도 빠트리지 않고 있다. 9월 현재 90가정이 혜택을 입고 있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소외 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시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하면 겨울철엔 저소득가구에 난방연료를 지원하고, 아울러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한 봉사활동 '사랑의 울타리'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에 도서, 중고컴퓨터 등 교육 자재를 지원하고, 경제금융교실 등 각종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북청 소속

집배원들 또한 '참사랑'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1천 400여 집배원들로 구성된 경북청 집배원365봉사단이 그 중심에서 있다.

이들은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회 약자층을 위한 '빛과 소금' 역할을 묵묵히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농어촌지역 홀몸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산불이나 자연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돌보는 '아동안전 수호천사'로도 위촉돼 '범죄없는 사회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현재 지역 내 412개 우체국을 아동안전 지킴이집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범죄 및 실종 예방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북지방우정청장은 "앞으로도 사회 약자층을 위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탬 계획"이라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잇따른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장찾기 운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당신의 마음을 붙여주세요.

너와 나, 우리가 채워나가는 세상
 우리의 자발적인 봉사문화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 적십자와 함께하세요!

설립 10주년 한국경제기획연구원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 자리매김

우수 인적자원 구축...대구·경북 싱크탱크 우뚝



지난 2001년 개원한 (재)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사장 이진구·사진)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며 힘차게 비상(飛上)하고 있다.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원가검토·계산 및 학술연구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 최고의 전문가 집단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인적자원 구축과 함께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연구과제 수행능력을 갖춘 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입을 모은다.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기획재정부 인가 학술연구기관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키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검토키관으로 지정받는 등 각종 법적자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경영진단기관은 물론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키관으로도 전국적인 명성과 함께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최고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 제시하고 있는 등 수요기관들을 위한 믿음·신뢰 경영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연구 분석과 함께 정보 및 정책대안 제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선 지역 사회의 최고 두뇌 집단인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



고 있다. 자지단체, 기업 등 주요 발주기관들로부터 높은 인지도
를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연구원에는 현재 석·박사 30여명, 원가분석사 7명과 공인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집단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나아가 연구과제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진행 매뉴얼도 확보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서회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컨셉을 수립하는 동
시에 전략수립을 기초로 한 개념정립과 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료
수집단계를 거쳐 세부연구와 양질의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는 등
가치구현을 극대화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총 네 차례의 심의 및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고의 성과물을 도출해 내고 있다고 설명했
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설립 이래 최근까지 10여년 간 국가 및
지자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3천여건의 학술연구 및 원가계
산, 경영컨설팅 분야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
혔다. 발주처 또한 대구지역 8개 시·군과 경북 23개 시·군뿐 만아
니라 경남, 충청 등 전국 각 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이진구 이사장은 “이런 성과물의 밑바탕엔 ‘고객 감동’과 ‘연구정
진’, ‘최고의 성과물 생산’, ‘세계 일류 연구원 등 4대 경영이념을
모토로 대한민국 최고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각분야 구성원
들의 패기와 열정, 도전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야별 수행 능력 전국 최고 경쟁력 확보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우선 재정경제연구사업에서 강점을 띠고
있다. 상·하수도,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연구를 비
롯해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과 조사연구, 국민경제정책 기획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경제분야 기본계획 수립 연구와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타당
성 조사 분석분야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경
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성과물의 기저에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
연구진을 확보한 덕분이라고 연구원 측은 강조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분야별 추진 실적을 살
펴보면 운영·조사·활성화분야 30건, 공공요금분야 20건, 타당성
·기본계획분야 60건으로 각각 집계되고 있다. 주요 연구 사업으
로는 경주시가 발주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비롯해 창원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연구, 문경시가 용역을 맡긴 석탄박물관 전시실재구

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포항시가 의뢰한 음폐수 하
수처리장 연계처리비용 산정 연구용역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영정책연구사업 역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경영정책연구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서, 경영자금, 국제인증 등을
지원하는 경영컨설팅과 정부 및 기업체 대상의 조사분석을 골자
로 하는 경영진단, 여론시장조사 연구를 위한 정책수립 등 크게 3
개 연구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진 실적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정책과제 30건, 경영진단 10건, 민간위탁분야 100여건을 각
각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시가 발주한 폐기물처리 기
본계획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비롯해 포항시의 의뢰를 받아 추진
한 재활용 선별센터 운영실태분석 용역,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
가 위탁용역 등 수많은 연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발주기관들
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아울러 원가회계 및 조사 연구 사업에서도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 동종업계 연구기관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무엇보다 수많은 실적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원가회계 및 조사 연구사업 분야에서 거둔 최근 3년간 실적은 용
역원가계산 300건, 공사·제조·개발 비용 100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북도의 정부유하 주변지역 개발기본계획 수립 원가계산용역을
미롯한 한국수자원공사의 경북권 통합운영시스템 제조 및 구매설
치 원가계산용역, 대구 수성구의 개발비용산정확인 용역 등이 대
표적 수행 과제로 꼽힌다.

‘100년 연구원’ 도약 목표로 인화단결에 총력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100년 연구원’ 도약
을 목표로 전 직원이 힘을 모아 ‘1등 연구원’ 조성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초일류 연구원’ 조성을 토대로 지역 사회의 성장과 발
전에 힘을 보태고, 나아가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경영비전에 담고 있다고
연구원 측은 강조했다.

이진구 이사장은 “신의와 진실이 존중받는 선진 일류 사회를 앞
당기고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과
학적 사고와 객관적인 연구능력 함량을 위한 연구 정진에도 만전
을 기하기 위해 전 직원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서기대 취재부장

중기(中企) 기술융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한재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장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근교에는 돌궐제국을 부흥시킨 명장 톨유쿠크의 비문이 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 한다.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열린사회만이 희망이라는 것인데, 이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기술 분야에서 경계를 허물고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융복합이 국제적인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향후 경제 및 사회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컨버전스, 하이브리드, 퓨전, 크로스오버 등 융복합을 의미하는 단어들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술 융합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 컨버전스의 사전적 정의는 한 곳으로의 집합, 통합이란 의미로 통용된다. 하지만 진정한 융합은 단순한 통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컨버전스=기술의 융복합”은 두 가지 이상 기술이 물리적 혼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로 발현되고 나아가서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 의미도 내포한다. 1+1=2 라는 공식이 통용되지 않고, 3이 될 수도 10이 될 수도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힘을 가진 것이 기술융복합이며, 이는 새로운 또 하나의 창조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융합기술이 미래의 첨단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은 기존의 주력 산업에 IT BI NT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키는 등 융복합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미국은 IT에 BI와 NT를 융합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걸쳐 세계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일본도 한국과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제조 노하우를 블랙박스화하는 등 NT를 중심으로한 융합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융복합화를 가속

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디지털화하는 제조공정IT융합 기술개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공상 융합 기술개발, 기술개발 주체간의 보유 기술을 융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연구기관간 또는 중소기업간의 기술융합을 지원하는 융복합기술개발, 융복합 R&D 및 사업화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술융복합지원센터 설치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중소기업이 융복합을 통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유리한 기반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지역내 대학이 50여 개, 공공연구기관이 30여개로 산학연협력이 활발하고, 기업과 기업의 기술교류 및 융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업종 연합회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애플CEO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듯이 대한민국도 이제는 “현재 수요를 충족하는 제품이 아닌 상상력에 기반한 제품으로 미래 수요를 창조”하는 것에 고민할 때이고, 우리는 글로벌 IT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애플사의 주요 전략이기도 한 이러한 표현에 대한 해답을 기술 융복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국가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주체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고 각자가 보유한 기술을 융복합하여 획기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특히 기술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위주의 지역 산업계에는 더욱더 필수불가결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융복합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신기술 융복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는 만큼 우수 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장기적 투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Travel Sketch

추억이 머무르는 곳



역사전통의 고장 봉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 봉화.

현존 국내 최대 규모인 103개 정자(亭子)를 확보, 학계와 관광업계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영남의 소금강' 청량산 도립공원, 조선시대 5대 사고지 중 하나인 태백산사고지 등 관광 명소가 봉화지역 곳곳에 즐비하다.

※자료출처 : 봉화군

“환매 수수료 없이 펀드 판매사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알아보기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 수수료 없이 판매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용 고객이 드문 형편이다. 이 제도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 데다 의외로 펀드 판매사 이동을 꺼리는 가입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들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펀드 판매사 이동제’. 알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방법과 금융업체간 차별화 상품을 알아본다.

펀드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해 1월25일 도입된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투자자가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펀드 이동은 펀드 판매사 창구를 찾아 신청서 한 장이면 끝날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여기에다 지난해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펀드 이동이 가능해져,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찾지 않아도 해결된다. 펀드 이동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입 펀드와 같은 펀드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업체를 찾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펀드의 판매사 이동이 가능한 것은 아닌 데 있다. 이동 가능 펀드는 공모펀드이며,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엠프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업체간 마케팅 경쟁 ‘후끈’

펀드 판매사들은 이 제도 시행이전만 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을 팔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영업형태를 보여 왔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관련시장에서 변화의 바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금융시장에서는 기존의 가입 고객을 지키고 경쟁업체 고객을 빼앗기 위한 금융업체간 서비스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증권은 후취형 수수료 펀드에 2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고객에게 판매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우량주 및 상장지수펀드(EITF)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고객에게도 매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현대증권도 후취 판매수수료 상품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환매할 경우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후취수수료 펀드에 2년 이상 투자하면 후취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대우증권은 펀드관리서비스인 ‘엑스레이

(X-ray)’를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지난해 7월 출시, 선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펀드 자산편입비율을 자산유형별, 투자국가별, 투자통화별로 각각 진단해주고 조정방안, 조정비율, 추천펀드 등을 통해 대안 및 처방까지 제시해주도록 고안된 게 특징이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증시분석 모델인 KIS(Korea Investment Securities) 투자시계를 활용해 고객 자산의 배분 및 편입 자산 선정, 리스크 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도 지난해 2월 신개념 펀드운용 분석기법인 ‘옥토펙트 GPS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등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펀드 이동은 기대 이하 실적

다만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시행 1년간의 실적을 살펴볼 때 금융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기대이하의 ‘고객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예약결제월엔 따르면 지난해 1월25일 이 제도 도입이후 시행 1년을 맞은 올 1월25일까지 1년간 총 2만2천736건의 펀드가 펀드사를 새로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194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하루 평균 90건, 금액으로 23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당초 ‘펀드 판매사 이동제’가 도입되면 판매사간 수수료나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촉발시켜 투자자들의 갈아타기 열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는 금융권의 예상과 상반된 것이다. 이 제도는 사실 도입한 초기에만 반짝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첫 달인 지난해 1월 1천123건을 기록해 월말에 제도가 도입된 탓에 다소 미비한 실적을 거뒀지만 2월에는 5천919건, 3월에도 5천630건으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린 이후 4월들어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자문형 랩이 크게 확산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고객이 급감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엔 이동건수가 951건에 머문데 이어 8월 968건, 9월 705건, 10월 610건에 그치더니 11월과 12월에는 각각 400건과 356건까지 추락했다. 특히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펀드 판매사 이동이 가능해져, 투자자들의 갈아타기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 이동제 에 이 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자별 투자기간에 따라 펀드 판매보수를 내려주는 체감식 제도가

시행된 것이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여기에도 펀드이동을 위해 투자해야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판매사간 수수료나 서비스 차별화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도 한 몫했다.

펀드 판매사 스스로가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서비스 상품을 보다 많이 출시, 고객유인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광희 금융전문기자

알고 보면 재미있는

BRAND 이야기

백화점 취급 브랜드 다양... 직수입 브랜드 최근 급증 추세



‘제이로즈로코 뉴욕’, ‘자딕 앤 볼테르’, ‘보테가베네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체사레파조티’,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등... 이런 생소한 단어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분명 패션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멋쟁이임에 틀림없다. 이들 모두는 백화점에서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 명칭들. 백화점을 자주 찾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니라면 읽기조차 힘든 외국어이지만 패션을 앞서가는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브랜드로 이름이 높다. 지역 유통가에 출시되고 있는 브랜드 종류와 특성,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본다.

브랜드 종류 구분법은

브랜드 종류는 구분 기준에 따라 크게 몇 가지로 구별된다. 수직적 측면에서 기업브랜드(Corporate Brand)와 패밀리브랜드(Family Brand), 개별브랜드(Individual Brand), 브랜드 수식어(Brand Modifier)로 구분되고, 시장 선점(market dominance) 정도에 따라선 선도 브랜드, 후발 브랜드, 모방 브랜드로 다시 나뉜다. 이와 함께 판매 지역에 따라선 지방브랜드와 전국브랜드, 국제브랜드 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백화점 브랜드는

백화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는 소유 유형에 따라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와 '라이선스 브랜드'(License Brand), '프라이빗 브랜드'(Private Brand), '직수입 브랜드'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내셔널 브랜드는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해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방브랜드에 비해 지명도와 보급률이 높아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지역 유통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셔널 브랜드로는 여성의류 중에서는 '빈폴', '타임', '마인', '모그' 등이, 남성 정장 중에선 '갤럭시', '맨스타', '로가디스' 등이, 골프 의류 중에선 '엘로드', '빈폴골프' 등이 각각 꼽힌다.

이와 달리 라이선스 브랜드는 다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사용계약을 허가받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상표권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브랜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상품에 브랜드 회사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브랜드를 통칭하는 것이다. 통상 의류나 피혁제품 등 인지도가 높은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유명 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명도가 낮은 자사 상표로 판매하는 것보다 판매 수익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새 상표를 개발, 출시한 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키우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패션업체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유통가에서도 라이선스 브랜드는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여성의류 '닥스', '베네통', '시슬리', '타미힐피겨', 남성의류 '폴로', '리코스테', '타미힐피겨', 골프웨어 '잭니클라우스', '캘러웨이', '보그너'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백화점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패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라이선스 브랜드는 총 170여개로 파악된다. 국가별로는 미국산이 49개로 가장 많고, 이어 프랑스 42개, 이탈리아 17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들어 지역유통시장에서는 프라이빗 브랜드(PB) 상품 출시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형소매점 등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PB상품은 소매업체가 고객 니즈를 바탕으로 특정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자체 기획을 거쳐 생산을 의뢰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상품을 통칭하고 있다.

PB상품은 국내에서 지난 1983년부터 상품 개발이 시작돼 10여년의 시험기간을 거쳐 95년경부터 모든 유통업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자사 브랜드나 자체상품으로도 칭해지는데, 무엇보다 일반 제품에 비해 가격 메리트가 뛰어나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들어선 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콜라, 티슈, 세제 등 다양한 종류의 PB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대구백화점의 경우, 80년대 남성 의류 및 잡화용품 브랜드 '빅벤'을 필두로 여성캐주얼 '글레드비', '이니그마' 등 다양한 PB 브랜드를 출시, 매출 효자상품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구백화점 측은 자사 PB상품으로 '대백 전원미' '대백 참 좋은란' '이름다운 과수원 청과시리즈' 등 식품관련 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귀띔했다.

직수입 브랜드도 증가 추세

최근들어선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직수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다. 직수입 브랜드는 주로 명품의류 등 고가제품 위주로 시판되고 있다. 직수입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시장 세분화와 함께 고객 니즈의 변화에 따른 시장 토대가 마련된 것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오프라인 메인 유통업체인 백화점 업계의 경우 차별화 전략의 하나로 고가 직수입 브랜드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도 최근들어 해외 유행 및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늘어난 것도 시장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다. 직수입 브랜드의 높은 선호도는 지역 유통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다. 대구백화점의 경우 '제냐', '듀폰', '모스키노', '비비안 웨스트우드', '비네사브루노', '띠어리', 'DKNY' 등 다양한 직수입 브랜드를 내놓고 있다.

대구백화점 마케팅총괄실 구승본 이사는 "(현재 대구백화점에는) 지역 최고 수준의 다양한 브랜드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차별화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유통전문기자

“향토 인재 육성·발굴에 매진할 터”

**김복규 의성군수,
장학사업 진두지휘**



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인 경북 의성군장학회에 장학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선 5기 김복규 의성군수가 장학회 최고 직책인 이사장직을 맡고서부터다.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장학회에 김 군수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조성된 장학금 규모는 모두 4억7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12월 장학회 출범이후 지난해 10월까지 8여년간 모금된 총액 12억2천여만원(의성군 출연금 제외)의 39%에 달하는 것이다.

의성군장학회에 답지되는 장학기금 규모가 최근들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지역 인재 양성과 발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김 군수의 의지와 집념이 일궈낸 성과로 의성군장학회 안팎에서 분석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성군장학회 이사장직에 민간인 출신이 도맡아 온 탓에, 장학기금 모금에 애로를 겪었으며, 모금 실적 또한 상대적으로 인근의 시·군과 비교해 저조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김 군수가 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거액의 장학금 기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출향기업가인 (주)한성철강 김종대 대표가 1천만원을 기탁한 것을 비롯해 의성영농축마늘조합법인 원용덕 대표가 500만원, 의성군 4H본부에서 500만원, 우주산업 김종기 대표 300만원, 단복성암리 주민 200만원, 농촌지도자 의성군연합회 200만원, 김세규

전(前) 의성군 기획실장이 2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각각 쾌척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농협중앙회에서도 거액의 장학기금 기탁에 동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는 지난 8월19일 의성군청을 방문, 장학기금 5천만원을 의성군장학회 측에 기탁했다.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의성군장학회에 장학기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선 장학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올해까지 지원한 기금만 무려 2억원을 헤아린다.

의성군과 의성군장학회는 매년 110여명의 학생을 선발해 1억여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금을 더욱 확충해 지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복규 의성군수는 “현재 의성지역 인구는 과거의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무려 50여개의 학교가 폐교의 아픔을 겪었다”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의성인(義城人) 모두가 향토 인재 발굴과 육성에 힘을 모아 의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젖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대 기자



청송군 항일의병기념공원 개관

국비 등 58여억원 투입...부동면 상평리 1만2천391m² 규모로 단장

충의(忠義)의 고장인 경북 청송군에 강점기 일제에 맞서 싸운 의병의 혼을 기리는 항일의병기념공원이 문을 열었다.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꽃밭등 일대 1만2천391m² 규모로 조성된 항일의병기념공원은 국가가 정한 '의병의 날' 인 지난 6월1일 다음 날인 2일 정식 개관하고 일반인에 공개됐다. 상평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꽃밭등 일대는 구한말 일제의 조선 침탈에 맞서 청송 의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항일의병 성지로 추앙되고 있다.

국비 등 총 사업비 58억7천500만원이 투입된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전시관을 비롯해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전국의 의병선열 1천927명의 위패를 모신 충의사와 동·서재, 창의루, 관리사 등을 전통한옥으로 단장해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항일의병기념공원은 구한말 청송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 의병 봉기인 '병신창의'를 토대로 성역화했다고 청송군은 전했다. 병신창의는 지난 1895년 일본의 단발령과 을미사변 등의 만행에 격분한 청송지역 유생과 농민 수백명이 쫓겨, 일본군에 맞선 의병 운동이다. 당시 85일 동안의 활동은 '적원일기

(赤猿日記)에 자세히 기록돼 전해지고 있다. 청송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항일투쟁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숨을 던진 의병정신의 본향(本鄕)이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 인명록에 등재된 전국 의병선열 1천927명 가운데 지역 출신이 무려 86명에 달할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병을 배출한 충의의 고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청송군은 항일의병기념공원 조성에 따라 전통 정신 문화를 선향하는 나라사랑 국학 교육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동수 청송군수는 "항일의병기념공원이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문화는 물론 역사 교육의 배움터로 활용되는 동시에 의병선열에 대한 참배의 성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2일 열린 항일의병기념공원 개관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경북도·청송군 의원, 의병정신선양회원, 상평리 주민 등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병의 날 기념행사와 추모제 등의 순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서기대 취재부장





대구·경북 쌀 수확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재배면적 감소 탓 주된 원인

벼는 대구·경북지역 농가들의 주된 소득 작물 중 하나다. 농외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농가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는 대표 농작물인 이유에서다. 다만 올해 벼 수확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함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 여파로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지역 벼 재배면적과 가격 동향을 점검한다. <편집자 주>

올해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85만3천823ha로, 지난해의 89만2천74ha에 비해 3만8천251ha(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벼재배면적은 11만3천444ha를 기록, 전년(11만9천814ha)보다 6천370ha 줄었다. 지역별로 대구가 3천218ha에서 2천894ha로 324ha(10.1%) 줄었고, 경북도 11만6천596ha에서 11만0550ha로 6천46ha(5.2%) 감소했다.

벼 재배면적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유흥지 증가와 함께 정부의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따라 콩, 옥수수, 사료작물과 같은 대체작물로 전환한 농가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경북의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전국의 쌀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올해 전국의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3만

여 감소한 426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수확량 예상치(418만)보다는 8만 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최근 10등인과 비교해선 가장 적은 규모에 머무르는 것이다.

국내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엔 551만5천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쌀값 하락 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등의 여파로 2004년 500만, 2005년 476만8천t, 2006년 468만t, 2007년 440만8천t, 2008년 484만3천t, 2009년 491만6천t선에 그치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벼 재배면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풍작이 지속되면서 수확된 쌀은 되레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의 쌀비축분이 조만간 80만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는데다 2010년산 비축분 또한 대부분 방출한 탓에 올해 수확기 이후 쌀값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 정부의 대응 방안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쌀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에 따라 연간 30만 정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외국인 쌀을 조기에 들여와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월16일 기준, 대구지역의 쌀 도매가격(상품 20kg)은 3만9천원을 기록해 1년전보다 7천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등 전반적인 가격 강세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최우혁 통계전문기자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연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 설립 이래 최근까지 10여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학술 및 원가계산·검토, 경영컨설팅에 관한 연구용역 3천건 이상을 수행한 공익 학술 연구기관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신비의 왕국 대가야!

고령 ~ 참 좋다!

일찍이 찬란한 대가야 문화를 꽃피웠던 자랑스런 고장으로서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는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이 있습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토기문화와 갑옷, 투구, 고리칼 등의
철기문화,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고령으로 오십시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왕릉전시관

대가야박물관

